■민족문화연구 제107호(2025.05.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063-098.
http://doi.org/10.17948/kcs.2025..107.063

석조미술을 통해 본 안성 봉업사지의 역사적 위상*

정성권(丁晟權)**

목 차

1. 머리말
2. 사찰 창건과 중창의 배경
3. 석조미술을 통해 본 역사적 위상
4. 맺음말

국문초록

본문에서는 먼저 봉업사의 발굴성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봉업사의 변천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명문기와와 영태2년명 탑지석의 기록 등을 토대로 봉업사의 전신인 화차사의 창건시기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화차사는 북경도위를 역임하였으며 신라 중앙에서 파견된 박적오가 주도하여 766년경 창건한 사찰임을 논의하였다. 사찰 창건은 패서지역의 개척과 중원경, 서원경을 비롯하여 한주의 치소였던 현재의 하남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로 상의 거점 건립의 필요성이 중요한 창건 배경이 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석조미술에 대한 분석은 봉업사지 일대의 석탑과 석불을 위주로 진행하였다. 죽산리 삼층석탑과 석탑하부의 통일신라 기단부를 분석하여 봉업사지는 경기도 일원에서 유일하게 통일신라 삼층석탑과 금동불을 닮은 석불입상이 남아 있는 위상이 매우 높은 사찰이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신라의 삼층석탑과 구분되는 봉업사지 오층석탑은 고려 문화를 상징하는 기념물로 해석하였다. 매산리 석조보살입상은 고려 광종이 호족의 시대는 끝났으며 황제의 시대가 등장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기념비적인 석불로 보

* 본고는 2024년 11월 17일 안성시 중앙도서관에서 개최된 〈안성 봉업사지 국가유산 사적 지정기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전문위원, 경기도·강원도 문화유산위원.

았다. 매산리 미륵당 오층석탑은 죽산리 석불입상 옆의 석탑과 함께 쌍탑으로 조성되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봉업사지 일대의 석조미술과 함께 장명사지 오층석탑과 석불입상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봉업사는 11세기 이후 국영사찰에서 읍치사찰로 사찰의 성격이 변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봉업사지, 화차사, 태조 왕건, 광종, 능달, 봉업사지 석조미술, 천왕사지

1. 머리말

안성 봉업사지는 태조 왕건의 진전이 봉안되었던 왕실 사찰이다. 봉업사지는 1997년부터 2004년까지 6차에 걸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봉업사지 일대에는 석탑과 석불 등 다수의 석조미술이 분포하고 있어 일찍이 학계의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죽주산성과 봉업사지가 있는 안성 죽산 지역은 이성산성과 천왕사지로 대표되는 하남 교산지구와 함께 경기도 내에서 가장 밀집된 유적과 유물의 분포를 보여주는 장소이다. 이러한 이유로 안성 봉업사지와 사지 일대의 석조미술, 봉업사지 출토 유물 등을 대상으로 그동안 많은 연구성과가 축적되었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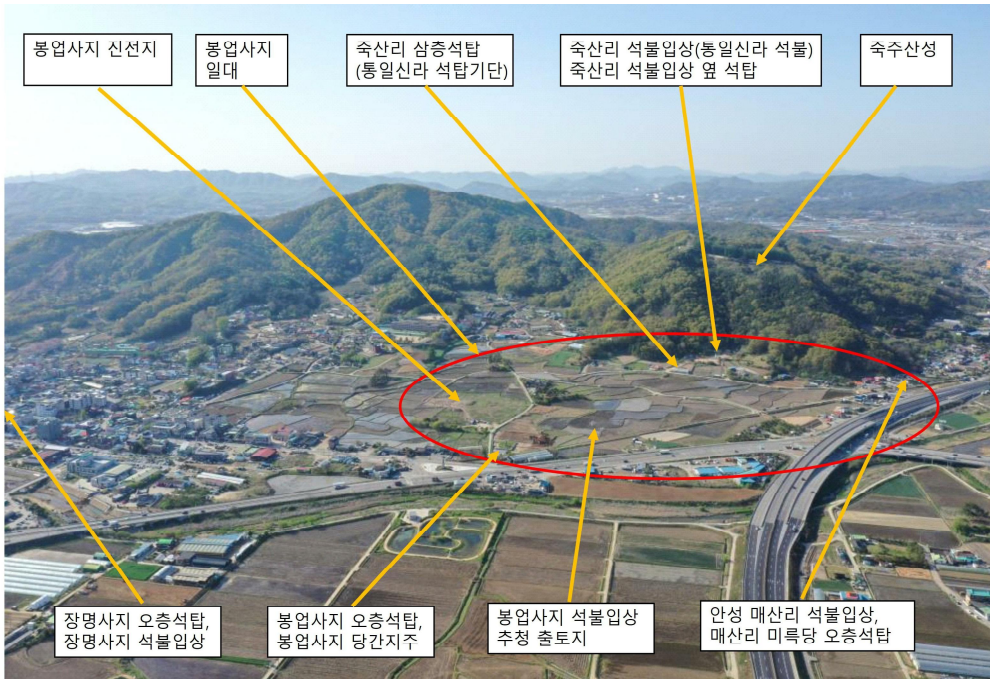
기존의 연구성과는 봉업사지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함께 고·중세 도시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아직 봉업사지의 구체적인 창건시기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또한 봉업사지 일대에 분포하는 다수의 석조미술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석탑과 석불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종합적인 관점에서는 연구되지 않았다.

본 글에서는 봉업사의 전신인 화차사의 구체적인 창건시기와 창건 주도세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봉업사지와 관련된 문헌기록, 금석문 기록,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명문기록 등을 분석할 것이다. 이와 함께 봉업사지 일대의 석조미술을 살펴볼 것이다. 분석 대상이 되는 석조미술은 죽산리 석불입상, 죽산리 삼층석탑, 봉업사지 석불입상, 봉업사지 오층석탑,

1) 봉업사지에 관한 개별 연구 성과는 본문에 표기하였다.

매산리 석조보살입상, 매산리 미륵당 오층석탑, 죽산리 석불입상 옆 석탑, 장명사지 오층석탑, 장명사지 석불입상 등이다.

봉업사(화차사)의 창건시기와 중창시기 및 주도 세력을 파악한 후 석조미술의 분석을 통해 봉업사의 역사적 위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글의 시간적 배경은 통일신라시대부터 봉업사지 일대 석조미술의 조성시기인 고려 초기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그림 1〉 안성 봉업사지 일대 유적과 유물 분포 현황

2. 사찰 창건과 중창의 배경

1) 발굴성과를 통해 본 명문기록

봉업사지는 2024년까지 6차에 걸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2] 발굴조사를

2) 1차-3차 발굴조사는 경기도 박물관에 의해 실시되었다. 1차 발굴조사는 1997년 9월-1998년 3월까지 진행되었다. 조사지역은 봉업사지 오층석탑 주변지역이다. 2차 발굴조사는 2000년 10월-2001년 3월까지 진행되었다. 2차 발굴조사지역은 1차 조사지역의 북쪽 일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3차 발굴조사는 2004년 3월-2004년 9월까지 진행되었다. 조사지역은 죽산리 삼층석탑 일

통해 출토된 많은 명문기와와 유물들은 봉업사지의 창건시기와 중창시기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1차 발굴조사에서는 21개의 건물지와 확인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부속시설 역시 조사되었다. 2차 조사에서는 眞殿址가 파악되었으며 '華次寺'명 명문기와가 출토되어 봉업사의 전신이 화차사였음을 알 수 있었다.[3] 3차 발굴조사에서는 6동의 건물지 유구와 범종 주조 유구가 확인되었으며 고려시대 석탑인 죽산리 삼층석탑 하층 기단부가 통일신라시대 조성된 삼층석탑의 기단을 재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4] 4차 발굴조사에서는 추정 사역 범위의 외곽으로도 다양한 유구들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5] 5차 발굴조사에서는 봉업사지 오층석탑 일대의 중심사역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진전구역의 개축 과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6] 6차 발굴조사에서는 중심사역 서쪽 건물지군에서 12동의 건물 유구를 조사하였으며 출토유물을 통해 중심사역과 같은 시기에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7]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명문기와 중 시기가 오랜된 것은 3차 조사에서 출토된 '太和6年'(832)명 명문기와와 '大中8年'(854)명 명문기와 등이 있다. '太和6年'(832)명 명문기와는 죽산리 삼층석탑 일대에서 출토되었으며 '大中8年'(854) 명문기와는 봉업사지 오층석탑 북쪽의 건물지에서 출토되었다. '大中8年'(854)명 기와가 출토된 발굴조사 지역에서는 '華次寺'명 기와도 함께 출토되었다.[8]

원이다. 4차 발굴조사는 중부고고학연구소에서 실시하였다. 4차 발굴조사는 봉업사지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시굴조사였다. 조사지역은 봉업사지 유적 주변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5차와 6차 발굴조사는 한백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실시하였다. 5차 발굴조사는 2022년 10월-2023년 7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조사지역은 오층석탑 일원과 진전구역 일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6차 발굴조사는 2024년 5월-2024년 9월 진행되었으며 조사지역은 4차 조사에서 유구가 출토된 봉업사지 오층석탑에서 서쪽으로 약 100여m 떨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3) 1차 및 2차 발굴조사 성과는 京畿道博物館, 『奉業寺』, 2002, 447-526면 참조.
4) 3차 발굴조사 성과는 京畿道博物館, 『高麗 王室寺刹 奉業寺』, 2005, 187-214면 참조.
5) 4차 발굴조사 성과는 안성시·중부고고학연구소, 『安城 奉業寺址』, 2020, 81-97면 참조.
6) 5차와 6차 발굴조사보고서는 2024년 현재 아직 발간되지 않았다. 5차 발굴조사 성과는 한백문화재연구원, 「안성 봉업사지 정밀발굴조사 완료약보고서」, 2023, 31-66면 참조.
7) 한백문화재연구원, 「안성 봉업사지 6차 정밀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2024, 19-22면.
8) 京畿道博物館, 『高麗 王室寺刹 奉業寺』, 2005, 191-192면.

1·2차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명문기와 중 조성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명문의 내용은 '丙辰'(광종7년, 956), '戊午'(광종 9년, 958), '辛酉'(광종 12년, 961), '峻豐'(광종 14년, 963), '乾德'(광종 16년, 965), '己巳'(광종 18년, 967), '甲戌'(광종 25년, 974), '興國7年'(성종 1년, 982), '興國8年'(성종 2년, 983) 등이 있다.[9]

3차 발굴조사는 죽산리 삼층석탑 주변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3차 조사에서는 太和6年'(832)명 명문기와가 출토되었으나 1·2차 발굴조사 시 봉업사지 오층석탑 일대에서 출토된 나말여초 기와는 없었다. 반면에 고려 광종대 이후의 명문기와는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출토된 명문기와 중 조성시기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와는 '丙辰上年/??(收)(宣)佰士'(광종 7년, 956), '(發)(令)/戊午年凡草作佰士必(收)毛'(광종 9년, 958), '(發)(令)/戊午年凡草作佰士必山毛'(광종 9년, 958), '乾德五年丁酉/大?山(白)士'(광종 18년, 967) '丁丑七月七日作草'(경종 2년, 977), '(興)國八年/天下大平'(성종 2년, 983) 등이다.[10]

4차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명문기와는 1-3차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내용과 유사하다. 5차 발굴조사에서는 '雍熙二年乙酉八月日万善里(早) 瓦草伯士能達毛' 명문기와가 출토되었다.[11] '雍熙(能達)'기와는 1·2차 발굴조사지역인 오층석탑 인근에서도 출토된 적이 있었던 명문기와이다. 그러나 1·2차 발굴조사 당시에는 연호가 생략된 채 '□年乙酉八月日竹…/…里凡草伯士能達毛' 간지와 인물명이 있는 명문기와만 출토되었다. 당시 조사단은 '능달'이 고려태조 왕건과 함께 일리천 전투에도 참여하였던 태조 왕건의 부하 능달과 동일인으로 파악하여 925년 능달이 봉업사를 중창한 것으로 이해하였다.[12] 5차 발굴조사에서는 연호가 명기된 '능달'기와가 출토되어 이를 통해 그동안 925년 조성된 것으로 파악되었던 '능달'명 기와의 조성시기가 985년(성종 4)이었음

9) 京畿道博物館, 『奉業寺』, 2002, 456면.
10) 京畿道博物館, 『高麗 王室寺刹 奉業寺』, 2005, 85면; 정성권, 「경기도 내 통일신라 석불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고찰—죽산리 석불입상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86, 부산경남사학회, 2013, 16면.
11) 안성시, 『안성 봉업사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 자료보고서』, 2023, 23면.
12) 京畿道博物館, 『奉業寺』, 2002, 476면; 정성권, 「태조 왕건의 봉업사 중창과 능달—봉업사지 석불입상과 관련하여」, 『한국사학보』 51, 고려사학회, 2013, 169-193면.

이 밝혀졌다.[13]

발굴조사를 통해 파악된 조성시기를 알 수 있는 명문기와는 대부분이 9세기와 10세기대에 만들어졌다. 명문기와 이외의 봉업사에 대한 기록은 『고려사』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문헌자료와 봉업사에서 출토된 조성시기를 알 수 있는 청동 유물 등이 있다.

『고려사』에는 1363년(공민왕 12) 공민왕이 봉업사의 태조 진영을 알현한 기록이 있다.[14]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에도 공민왕이 태조 진영을 알현한 기록이 있으며 지금은 석탑만이 남아 있다는 내용도 실려있다.[15] 봉업사에서 출토된 청동유물 중 청동향완은 명문을 통해 향완이 1081년(문종 35) 봉업사에서 조성된 것임이 밝혀졌다.[16] 조성시기를 알 수 있으며 봉업사와 관련된 또 다른 유물로는 '봉업사명 청동반자'가 있다. 이 유물은 명문을 통해 1217년(고종4) 봉업사 주지 찬겸이 발원하여 조성한 것을 알 수 있다.[17]

2) 봉업사의 전신 화차사의 창건시기

봉업사는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명문기와를 통해 봉업사의 전신이 화차사였음이 밝혀졌다.[18] 봉업사는 화차사가 있었던 장소 위에 새롭게 사찰을 중창한 것이다. 화차사의 창건시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구제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매산리 석불입상 앞에 있는 미륵당 오층석탑에서 출토된 영태2년명 탑지석의 내용과 박적오와 관련된 명문기록을 분석하면 화차사의 창건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영태2년명 탑지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3) 안성시, 『안성 봉업사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 자료보고서』, 2023, 23면, "雍熙二年乙酉八月日万善里(早)瓦草伯士能達毛"

14) 『高麗史』 세가 권제40 공민왕 12년.

15) 『新增東國輿地勝覽』 권8, 竹山 古跡 奉業寺, "在飛鳳山下。高麗時 , 安太祖眞。恭愍王十二年二月 , 駕發淸州 , 次是寺 , 謁眞殿。今只有石塔"

16) 허흥식 편, 「奉業寺盤子」, 『韓國金石全文』3, 아세아문화사, 1984, 509면, "大康七年辛酉正月日奉業寺□□安小待父母長命"

17) 허흥식 편, 「奉業寺盤子」, 『韓國金石全文』3, 아세아문화사, 1984, 966면, "貞祐五年歲在丁丑名字沙門粲謙住于此竹州奉業寺發願鑄成印上大匠夫金大匠阿角三大匠景 文都色大師洪植"

18) 京畿道博物館, 『奉業寺』, 2002, 506-507면.

사료 1. ① (옆면) 永泰 2년(766) 병오년 3월 30일에 박씨와 芳序, 令門 두 승려가 먼저 한번 만들고자 한 것을 이루었다. ② (밑면) 탑이 이루어진 영태 2년 병오년으로부터 (탑을) 고친 금년 淳化 4년(993) 계사년 정월 8일까지 헤아려보니 228년이 된다. 전에 처음 만든 이가 朴氏이고 또다시 고친 이도 박씨이니 연대는 비록 다르나 지금과 옛날이 자못 동일하여 참된 정성을 더욱 힘써 寶塔을 중수하였다. 만든 匠人은 玄霍長老이고 (탑을) 만든 주인은 朴康이다.[19]

영태2년명 탑지석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10.5cm, 11.3cm이며 높이는 약 4.5cm이다. 탑지석의 하부와 측면에는 명문이 새겨져 있으며 상면 중앙에는 지름 2.5cm 원공 위에 청동제 사리호가 있다. 영태2년명 탑지석의 측면 4면에는 "永泰二年丙午, 三月卅日朴氏芳, 序令門二僧謀, 一造之先▨行能"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탑지석의 하부에는 위의 사료 1중 ②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②는 993년에 석탑을 만든 후 766년 조성된 탑지석의 바닥에 새롭게 탑을 만들었다는 내용을 적은 것이다.



〈그림 2〉 영태2년 탑지석 측면



〈그림 3〉 영태2년 탑지석 바닥

그동안 영태2년 탑지석의 내용을 인용하였던 많은 논문이나 보고서 등에서는 사료 1의 ①에 등장하는 박씨를 비롯한 두 승려(방서, 영문)가 만든 탑을 탑지석이 발견된 매산리 미륵당 오층석탑으로 인식하였다.[20] 그러나 매

19) 국가유산 지식이음, 금석문 검색, 영태2년명탑지(永泰二年銘塔誌), (https://portal.nrich.go.kr/kor/ksmUsrView.do?menuIdx=584&ksm_idx=2854).

20) 영태 2년명 탑지석의 명문을 인용하여 박적오의 죽주 진출에 관한 적극적인 논지를 펼친 정청주의 논문에서는 영태 2년 건립된 탑을 석탑으로 설명하고 있다(鄭淸柱, 「新羅末高麗初 豪族의 形成과 變化에 대한 一考察-平山朴氏의 一家門의 實例 檢討」, 『歷史學報』 118, 1998, 6면). 정청주의 논문 이후 영태2년 탑지석과 관련된 논문과 보고서에서는 영태 2년 건립된 탑을 석탑으로 보는 논

산리 미륵당 오층석탑은 766년 조성된 석탑이 아니라 993년 조성된 고려시대의 석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8세기 조성된 석탑이라면 불국사 석가탑과 같이 규모가 큰 통일신라 정형기 삼층석탑이 조성되었을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경기도 일원에는 통일신라시대 조성된 석탑이 남아 있지 않다.[21] 일반적으로 석탑이 경상도 외곽지역으로 본격적으로 확산된 시점이 9세기 이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영태 2년인 766년 건립된 탑은 석탑이 아니라 목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봉업사지 1·2차 발굴조사 결과 봉업사지 오층석탑 북쪽 인근에 있는 건물지는 통일신라시대 남북자오선을 중심축으로 목탑-금당-강당의 정연한 가람배치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후 고려시대에 들어와 목탑 앞에 봉업사 오층석탑이 건립되었으며 통일신라시기 목탑지는 금당지로, 통일신라시기 금당지는 봉업사의 강당지로 재건축되었다.[22] 영태2년 탑지석에 의하면 현재의 봉업사지 일원에는 766년 목탑이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766년 건립된 목탑은 봉업사지 1·2차 발굴조사 시 확인된 목탑지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목탑지 인근에서 출토된 막새기와 중 8엽 연화문과 보상화문이 있으며 주연부에 연주문이 배치된 형태로 화려한 장식적 요소가 반영된 막새기가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발굴조사 보고서에서는 이 기와를 9세기경 조성된 막새기와로 추정하고 있다.[23] 하지만 국립경주박물관 영남권수장고인 신라천년보고 내에는 시기별 신라 막새기와가 전시되어 있으며 봉업사지 출토 보상화문 막새기와는 8세기 막새기와와 가장 유사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봉업사지에서 출토된 통일신라 토기류 역시 8세기 이후로 편년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24]

영태2년 탑지석의 내용과 발굴조사를 통해 파악된 목탑지의 존재를 통해

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21) 안성 죽산리 삼층석탑은 고려시대 석탑이나 하층기단부는 통일신라 석탑의 기단을 재사용하였다. 죽산리 삼층석탑의 하층기단은 현재 경기도내에 현존하는 유일한 통일신라 삼층석탑의 부재이다.

22) 京畿道博物館, 『奉業寺』, 2002, 448면.

23) 京畿道博物館, 위의 책, 451면.

24) 京畿道博物館, 위의 책, 459면.

살펴보면 봉업사의 전신인 화차사의 창건은 766년(혜공왕 2) 경으로 파악할 수 있다. 동반 출토되는 유물 역시 8세기 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화차사는 창건기부터 목탑이 건립된 규모 있는 사찰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봉업사지 출토 보상화문 막새



〈그림 5〉 국립경주박물관 신라천년보고 내 막새

3) 화차사의 창건배경

영태2년 탑지석의 내용에 의하면 766년(혜공왕 2) 탑을 건립한 주체는 박씨와 두 승려이다. 탑지석에 기록된 박씨는 아래의 사료 2에 등장하는 박적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박적오는 경주에서 지방관으로 나갔다가 임지에 정착하였던 인물이다. 赤烏는 북경도위를 역임하였는데 北京은 658년(무열왕 5)까지 北小京으로 불리기도 하였었던 溟洲로 알려지고 있다.[25]

명주에서 죽주로 온 박적오는 죽주에서 察山侯가 되었다. 죽주는 본래 고구려의 皆次山郡으로 불렸다가 신라 경덕왕 때 介山郡으로 바뀐 곳이다.[26] 察山은 竹州의 옛 명칭인 皆次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27]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적오가 察山侯로 불렸다는 점이다. 察山侯는 介山郡의 태수를 지칭한 것이다.[28] 박적오는 신라정부에서 죽주로 파견된 중앙관리이며 죽주에 온 시

25) 鄭淸柱, 「新羅末高麗初 豪族의 形成과 變化에 대한 一考察-平山朴氏의 一家門의 實例 檢討-」, 『歷史學報』 118, 역사학회, 1998, 4면.
26) 『三國史記』 卷35 雜志4 地理2.
27) 李樹健, 「高麗前期 地方勢力과 土姓」, 『韓國中世社會史硏究』, 一潮閣, 1984, 156면.
28) 鄭淸柱, 위의 글, 5면; 정성권, 「弓裔와 梁吉의 전쟁, 비뇌성 전투에 관한 고찰」, 『軍史』 83,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2, 208면.

기는 아래의 사료를 분석하면 추정할 수 있다.

사료 2. 그 선대는 북경도위 赤烏로 신라로부터 죽주에 들어가 察山侯가 되었고 또 平州로 들어가 십곡성 등 13개 성을 설치하여 궁예에게 귀부하였다. 그 후 자손이 번창하여 우리 태조가 통합할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繼嗣가 끊기지 않았다.[29]

사료 3. 박씨의 선조는 계림인으로 대개 신라 시조 혁거세의 후예이다. 신라 말 그 후손 察山侯 積古의 아들 直胤은 대모달로 平州의 관내 八心戶에 徙居하여 읍장이 된 까닭에 직윤으로부터 그 후손은 평주인이 되었다.[30]

박적오가 죽주에 온 시기는 경덕왕 때로 추정된다.[31] 다른 연구로는 박적오 후손인 박직윤, 박지윤, 박수경 등의 생존시기를 추정하여 박적오가 죽주에 온 시기를 9세기 초·중반으로 파악하기도 한다.[32] 사료 2에 의하면 박적오는 죽주에 온 후 다시 평주로 들어갔으며 사료 3에 의하면 평주로 들어간 이는 박적오가 아니라 박적오의 아들 박직윤이 된다. 박적오 또는 그의 아들이 죽주에서 평주로 간 이유는 782년(선덕왕 3) 설치된 패강진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박적오가 죽주에 온 시기는 경덕왕 때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판단한다. 패서지방의 개척은 748년(경덕왕 7)에 시작되어 826년(헌덕왕 18)에 완료되었다.[33]

박적오는 신라의 경주에서 지방관으로 명주에 파견되었다가 경덕왕 재위시기 다시 죽주로 파견되었다. 영태2년(766년, 혜공왕 2) 탑지석의 내용을

---

29) 김용선 편, 「朴景仁墓誌銘」, 『고려묘지명집성』, 한림대 아세아문화연구소, 1993, "其先北京都尉赤烏 自新羅入竹州 爲察山侯 又入平州 置十谷城等十三城 歸于弓裔主 厥後子孫蕃昌 自我太祖統合時 至于今不絶繼嗣"

30) 김용선 편, 「朴景仁墓誌銘」, 『고려묘지명집성』, 한림대 아세아문화연구소, 1993, "朴氏之先 雞林人也 蓋新羅始祖赫居世之裔也 新羅之季 其孫察山侯積古之子 直胤大毛達徙居 平州管八心戶爲邑長 故自直胤而下爲平州人"

31) 鄭淸柱, 위의 글, 6면.

32) 이재범, 「신라말·고려초 안성지역의 호족과 칠장사」, 『안성 칠장사와 혜소국사 정현』, 사회평론, 2011, 27면.

33) 李基東, 「新羅下代의 浿江鎭」, 『韓國學報』 4, 일지사, 1976, 212-215면.

통해 보면 죽주에는 766년경 탑과 함께 사찰이 창건된 것으로 보인다. 766년경을 사찰의 창건시기로 본다면 사찰 건립이 계획되고 공사가 시작된 시기는 경덕왕 재위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봉업사의 전신인 화차사 창건을 주도한 인물을 박적오로 판단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박적오를 화차사의 창건을 주도한 인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8세기경 경주와 인근지역을 제외한 경주 외곽의 지방에 사찰을 창건한 사례는 매우 드물며 특별한 경우 신라 정부의 지대한 관심 속에 사찰이 건립되었기 때문이다. 8세기경 지방에 사찰이 창건되기 위해서는 신라 정부의 후원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에서 관리나 승려가 파견되기도 하였다.[34]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8세기 중반경 죽주에 목탑을 갖춘 사찰이 창건되었다는 점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삼국통일 직후 현재의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일원은 군사적 요충지에서 변방으로 전락하였다. 통일 직후 각 지방 주둔 군단으로 설치된 10정의 위치는 현재 경기도 일대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지방 주둔 군단인 10정 중 북쪽에 배치된 군단으로는 벌력천정, 골내근정, 남천정 등이 있다. 이 군단이 배치된 지역은 지금의 홍천, 여주, 이천 지역에 해당한다. 나당전쟁이 끝나고 당나라가 물러간 후 신라는 대동강 이남의 땅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8세기 후반 패강진이 설치되기 이전까지 황해도 일대의 지역에는 상주군이 배치되지 않았다. 신라 군단이 배치된 최북단은 홍천-여주-이천이었던 점은 주목된다. 이는 신라가 군대를 배치하여 실질적으로 지키고자 의지를 보였던 지역의 범위를 파악하게 해준다.[35]

화차사가 건립된 현재의 죽산 지역 일대는 인근의 죽주산성, 망이산성, 설성산성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삼국시대 군사적 성격이 강했던 지역이었으며

---

34) 8세기경 지방에 사찰이 창건될 시 중앙에서 관리나 승려가 파견된 사실은 826년 제작된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의 명문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중초사지 당간지주 명문에 의하면 826년 경주 황룡사 항창 스님이 안양사로 파견되었다. 중초사지 당간지주의 내용은 9세기 초반의 내용이지만 7-8세기경의 지방 사찰 건립 양상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35) 정성권, 「불교미술 분포를 통해 본 신라문화권의 북방한계」, 『신라사학보』 46, 신라사학회, 2019, 250-251면.

통일 이후에는 변경으로 전락한 곳이다. 이곳에 8세기 중반경 목탑을 갖춘 대형 사찰이 창건되었다는 점은 신라의 조정에서 죽주 지역을 매우 중요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방증한다.

법흥왕때 불교가 공인된 이후 신라 경주에는 많은 사찰이 창건되었으나 경주 이외의 지역으로 사찰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는 9세기경에 이르러서이다. 6-7세기경의 신라에는 수도였던 경주에도 아직 사찰이 많이 건립되지 않았다. 이러한 때에도 신라 정부는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교통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외곽지역 일부에 사찰을 창건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문경 대승사와 봉화 지림사, 영주 부석사, 창녕 관룡사, 하남 천왕사 등이다.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된 사찰 중 가장 이른 시기에 건립된 사찰은 진평왕대 건립된 문경 대승사와 창녕 관룡사가 있다. 먼저 아래의 사료를 통해 대승사의 건립 시기를 살펴볼 수 있다.

> 사료 4. 竹嶺 동쪽 1백리 가량 떨어진 마을에 높은 산이 있는데, 진평왕 9년 甲申年에 홀연히 사면이 1丈이나 되는 큰 돌의 사방에 여래를 조각하고 붉은 비단으로 감싼 것이 하늘로부터 그 산 정상에 떨어졌다. 왕은 그 말을 듣고 그곳에 가서 쳐다보고 예경한 후, 그 바위 곁에 절을 창건하고 이름을 大乘寺라 하였다.36)

사료 4에서 언급된 대승사와 관련된 내용 중 진평왕 9년은 기록과 달리 갑신년이 아니라 정미년(587)이며, 진평왕 재위기의 갑신년은 624년(진평왕 46)에 해당한다.37) 대승사는 문경에 있으며 이곳은 소백산맥 남쪽으로 소백산맥을 넘는 주요 고갯길인 계립령과 벌령을 통제할 수 있는 곳이다. 봉화 지림사는 7세기 전반기 대형 불상인 북지리 마애불과 역시 7세기 전반기로 편년되며 현재 경북대학교 박물관에 전시 중인 북지리 석조반가사유상이 출토된 사찰이다. 지림사에는 또한 6세기 후반-7세기 초반으로 추정되는 마애

36) 『三國遺事』 卷3, 塔像4, 四佛山·掘佛山·萬佛山.
37) 소현숙, 「6세기 말 7세기 전반 신라 불상의 새로운 경향과 對中交流」, 『신라사학보』 52, 신라사학회, 2021, 113면.

탑이 새겨진 마애불상군이 존재한다. 지림사가 위치한 봉화 지역은 경주에서 소백산맥과 태백산맥 방향으로 나아갈 때 길이 갈라지는 분기점에 해당한다. 즉 이 지역은 소백산맥을 넘어가기 직전의 관문 같은 역할을 하는 교통의 요지이다.[38]

영주 부석사는 나당전쟁 기간인 676년 의상이 문무왕의 뜻을 받들어 소백산맥 내에 창건한 사찰이다.[39] 사찰의 창건 목적은 당나라와의 치열한 전쟁 중 주변 지역 백성들을 위무하고 소백산맥 북쪽에 분포한 다수의 고대 산성들과 후방의 왕경을 원활하게 연계하는 일종의 후방 배후기지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40]

삼국시대 신라의 주요 교통로는 계립령로와 죽령로가 북방의 주요 교통로였다. 신라에서 백제로 향하는 서방의 주요 교통로는 창녕에서 합천으로 가는 길이다. 신라는 서쪽의 주요 교통로를 관할하는 핵심지역인 창녕에도 이른 시기에 사찰을 건립하였다. 창녕 관룡사는 신라 진평왕이 재위 5년(583)에 창건하였다는 설화가 전한다.[41] 창녕의 지정학적 위치와 문경 대승사의 창건 설화를 고려한다면 창녕 관룡사가 진평왕대 창건되었다는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42]

하남 천왕사지는 923년경 신라의 국사였던 심희의 제자 찬유가 태조왕건의 권유로 주지를 맡았던 사찰이다. 천왕사지에서는 일제강점기 '세계 최대 철불'로 알려진 하사창동 철조여래좌상이 반출되기도 하였다. 천왕사지는 중심사역에서 발견된 심초석이 사리함을 결합하는 양식의 목탑 심초석으로 추정되는 점과[43] 이중연판 막새의 제작시기가 7세기 후반경으로 편년이 가능

38) 정성권, 「영주 및 봉화지역 7세기 신라 불교조각의 조성배경—영주 가흥동 마애여래삼존상을 중심으로」, 『대구사학』 151, 대구사학회, 2023, 34-35면.
39) 『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7 文武王 16年 2月.
40) 정성권, 「항마촉지인 불상의 신라 등장시기와 배경—부석사 무량수전 소조여래좌상을 중심으로」, 『신라사학보』 59, 신라사학회, 2023, 76-86면.
41) 장일규, 「창녕 관룡사의 역사와 寺格」, 『신라사학보』 44, 신라사학회, 2018, 422-423면.
42) 정성권, 「후백제의 불교조각과 합천 죽고리 석조비로자나삼존상」, 『동양학』 97,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24, 24면.
43) 황보경, 「하남지역 불교유적에 대한 연구」, 『고문화』 56, 2000, 190-192면.

한 점,[44] 하사창동 342-7번지 유적의 하부건물지 출토 당초문기와가 이성산성 출토품과 같은 형식이라는 점에서[45] 창건연대를 7세기로 보는 의견이 있다. 이밖에 현재까지의 발굴성과에서 확인된 유물과 유구의 성과만으로는 천왕사지의 창건시기를 7-8세기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46] 하지만 천왕사지 중심사역 내에 있는 공방지의 고지자기 측정 결과 기와가마 1호의 산출연대가 A.D.615±25년 또는 A.D.670-730년이며 탄요1호의 경우 A.D.595-720년, 탄요2호는 A.D.600±30년 또는 A.D.680-760년인 점은 천왕사지의 창건시기를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47] 고지자기 측정 결과는 천왕사지가 7세기경 또는 늦어도 8세기경에는 목탑과 함께 사찰이 건립되었음을 보여준다.

안성 봉업사지의 전신인 화차사는 766년 신라 정부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사찰을 창건한 곳으로 볼 수 있다. 신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6-7세기경 경주와 연계된 간선도로가 만나는 소백산맥 이남에 문경 대승사와 봉화 지림사를 창건하였으며 낙동강 동쪽에는 창녕 관룡사를 창건하였다. 나당전쟁기에는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영주에 부석사를 창건하였다. 6-7세기경 경주 외곽에 창건된 사찰은 지금의 경상도 영역 내이다. 8세기경부터는 소백산맥 이북의 지방에도 사찰이 창건되었다.

제천 월광사지에 있었던 원랑선사 탑비 비문의 내용 중에는 "月光寺者神僧道證所刱也"라는 기록이 있다.[48] 이 문장 중 도증은 신라 효소왕대(692-702)에 주로 활동했던 유식학계의 스님으로 圓測의 제자이다. 비록 입적과 관련하여 정확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나 그의 활동시기를 중심으로 본다면 8세기 중반까지는 생존했을 가능성이 높다.[49]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소백산

44) 노윤상, 「하남 천왕사지 출토 이중연판 막새의 제작시기 검토」, 『신라문화』 39, 2012, 228-233면.
45) 한양대학교박물관, 『하남 하사창동 342-7번지 유적—천왕사지』, 2015, 112-113면.
46) 최태선, 「하남의 사원유적과 유물연구」, 『하남역사총서』 2. 2020, 328면.
47)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하남 하사창동 68-2번지 유적』, 2013, 285-298면.
48) 국가유산 지식이음, 금석문 검색, 제천 월광사지 원랑선사탑비(堤川 月光寺址 圓朗禪師塔碑).
49) 정제규, 「월광사의 사상적 변화와 그 위상」, 『제천 월광사지』, 충청전문대학 박물관, 1998, 9면.

맥을 넘는 계립령로에 있는 월광사는 8세기 전반에 법상종의 도증이 창건한 절이 된다.

8세기 전반기 소백산맥 북쪽에 창건된 월광사는 충주를 거쳐 한주로 연결되는 주요 교통로인 계립령로가 지나가는 곳이었다. 월광사가 건립된 시기를 전후하여 늦어도 8세기경, 현재의 하남 지역에 목탑을 갖춘 천왕사가 창건되었으며 766년에는 죽주에 화차사가 조성되었다. 소백산맥 이북 지역에 8세기경 사찰이 창건되었다는 것은 신라의 지방 경영과 관련되어 주목해야 할 사건이다. 천왕사가 현재의 하남 지역에 만들어진 이유는 그 장소가 漢州의 치소였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서도 불국사가 아직 완공되기도 이전인 766년에 변방이었던 죽주에 목탑을 갖춘 대형 사찰이 창건되었다. 이 점은 신라의 지방 경영과 관련하여 주목하여 해석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이다.

화차사의 창건은 국가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기에 신라 중앙에서 관리나 승려가 파견되어 사찰의 창건을 감독하였을 것이다. 죽주에 화차사의 창건을 주도한 인물은 화차사 창건이 계획되어 공사가 진행된 시기가 경덕왕 때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박적오를 상정할 수 있다. 박적오는 경덕왕 무렵 북경도위를 역임하였기에 지방민을 통솔하여 사찰을 건립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인물로 보인다. 신라 조정에서 죽주에 관리를 파견하여 사찰을 창건한 이유는 박적오의 후손이 패서 지역으로 진출한 사료 2와 사료 3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패서 지역의 개척과 패강진의 설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신라는 8세기 후반경 패서 지역을 개척하였으며 패강진을 설치하였다. 패강진 설치를 위해서는 소백산맥 이북의 간선교통로와 패서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로의 보완이 필요하였다. 경주에서 패서 지역으로 인력과 물자를 보내기 위해서는 소백산맥을 넘어 충주나 청주를 지난 후 지금의 하남 지역에서 한강을 건너 북쪽으로 나아갔다.[50] 그런데 8세기경 충주나 청주 이북, 현재의

50) 서영일,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335-342면.

경기도 일대는 군사적 요충지에서 변방으로 전락한 상태였다. 신라는 늦어도 8세기경 하남에 천왕사를 창건하여 원주, 충주, 청주와 연결되는 거점지역에 주요 시설을 조성하였다.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였을 때 경주에서 패강진까지 전해지는 물류와 사람들의 통행은 주로 충주와 청주를 통해 하남으로 연결되는 교통로를 통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는 한주의 치소였던 하남 지역과 충주(중원소경) 및 청주(서원소경)의 중간지점인 죽주에 봉업사의 전신인 화차사를 건립하였다. 봉업사지에서 하남과 충주 및 청주까지의 직선거리는 각각 약 50km 내외이다. 봉업사지의 위치는 소백산맥 이북의 주요 거점지역 3곳의 중간지점에 해당하는 곳이다.

천왕사 창건 이후 신라정부는 766년경 현재의 봉업사지 일대에 화차사를 새롭게 조성하여 패서 지역 개척으로 인해 늘어난 물류와 행인들을 관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봉업사의 전신인 화차사의 창건배경은 패서 지역 개척으로 인한 간선교통로의 안전한 관리와 통일 이후 변방으로 전락한 경기도 남부 지역 일대의 안정화가 중요한 조성 배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서해 남양만 일대에 위치한 당은포와 연계되는 교통로의 안전한 통제 역시 중요한 창건 배경이라 할 수 있다.

4) 화차사와 봉업사의 중창

화차사는 '太和6年'(832)명 명문기와와 '大中8年'(854)명 명문기와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9세기 전반기와 중반기에 중창이 있었다. 3차 발굴조사에서 주로 출토된 '태화6년'명 기와는 봉업사지 오층석탑에서 북쪽으로 약 500m 떨어진 죽산리 삼층석탑 주변에서 주로 출토되었다. 죽산리 삼층석탑은 고려시대 석탑이나 죽산리 삼층석탑 하층기단은 통일신라 정형기 삼층석탑의 하층기단을 재사용하였다.

죽산리 삼층석탑 하부와 3차조사 시 1건물지로 명명된 곳의 하부에서는 '太和6年'명(832) 기와가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太和6年'명 기와는 봉업사지 3차 발굴조사에서 가장 많이 출토된 명문기와이며 1·2차 발굴조사 지역인

봉업사지 오층석탑 주변에서는 출토되지 않았다. 이를 고려했을 때 832년에 현재의 죽산리 삼층석탑 주변에는 여러 채의 건물이 들어섰으며 석탑의 존재로 보아 독립된 사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51]

앞에서는 봉업사지 오층석탑 북쪽에 위치한 목탑지를 766년 화차사의 창건과 함께 건립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화차사는 8세기 중엽 창건하였으며 '太和6年'명(832) 기와에서 알 수 있듯이 832년경 목탑이 건립되었던 화차사에서 북쪽으로 약 500m 떨어진 곳에 별도의 예배공간을 갖춘 사찰이 조성되었다. 이후 '大中8年'(854)에는 목탑이 세워진 사역을 중수한 것으로 보인다.

신라 말기 봉업사지 일원에서는 죽주적괴 기훤이 활동하였으며 궁예와 양길이 충돌하였던 비뇌성 전투 역시 죽주산성 인근에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52] 죽주적괴 기훤이 활동하였던 주무대는 죽주산성과 현재의 봉업사지 일원으로 추정된다. 신라 말기의 혼란한 사회상은 현재의 봉업사지 일원에 있었던 사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832년경 화차사에서 확장된 죽산리 삼층석탑 일원의 사역은 신라 말기의 혼란기에 석탑이 무너질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죽산리 삼층석탑 일원의 사역은 출토된 명문기와를 통해 보면 고려시대인 956년(광종 7)이후 중창되기 시작하여 광종대 지속적으로 불사가 이루어졌다.[53]

봉업사지 일원은 899년 비뇌성 전투 이후 궁예의 통제하에 들어갔으며 자연스럽게 왕건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었다. 태조 왕건은 918년 궁예를 몰아낸 후 고려를 세웠으며 고려의 등장 이후 태조 왕건은 925년까지 내치에 힘을 쏟았다. 태조 왕건은 923-924년경 하남 교산동 일원에 대형 건물지를 조성하였다. 태조 왕건이 대형 관영건물지를 하남에 조성한 이유는 925년부터

---

51) 정성권, 「경기도 내 통일신라 석불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고찰—죽산리 석불입상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86, 부산경남사학회, 2013, 12면.

52) 이도학, 「궁예의 북원경 점력과 그 의의」, 『東國史學』 34, 동국사학회, 2007, 196-198면; 정성권, 「弓裔와 梁吉의 전쟁, 비뇌성 전투에 관한 고찰」, 『軍史』 83,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2, 201-207면 참조.

53) 각주 8) 참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대후백제 공세를 준비하는 과정 중의 하나로 이해된다. 고려는 925년 10월에 이르러 고려의 건국 후 한 번도 없었던 후백제에 대한 선제공격을 시행하였다.[54] 하남 교산동건물지는 태조 왕건에 의해 대후백제전을 준비하기 위해 건립된 군수창고와 같은 성격의 관영건물지로 여겨지고 있다.[55]

교산동 건물지를 건립한 태조 왕건은 안성 봉업사지 역시 중창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기존의 연구는 1·2차 조사시 출토된 '능달'명 명문기와(□年乙酉八月日竹…/…里凡草伯士能達毛)를 근거로 태조 왕건이 925년경 봉업사지를 중창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5차 발굴조사에서 '능달'명 명문기와의 연호가 '雍熙二年(985년, 성종4)'임이 밝혀짐에 따라 '능달'명 명문기와의 인물은 태조 왕건의 부하였던 인물이 아닌 동명이인임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56] '雍熙二年'명 기와로 인해 태조 왕건의 부하 능달이 925년에 봉업사를 중창한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졌으나 태조 왕건이 후삼국시기 봉업사를 중창하였을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 중 하나로는 후삼국시대 벽진군 장군 이총언이 왕건에게 귀부하자 충주·원주·광주·提州와 죽주 창고의 곡식 2,200석과 소금 1,785석을 주었다는 내용을 들 수 있다.[57] 후삼국시대 죽주에 쌀창고와 소금창고가 존재하였다면 봉업사 역시 기훤에 의해 일부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사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봉업사지가 태조 왕건시기 중창되었을 가능성은 현재 칠장사로 옮겨진 봉업사지 석불입상을 통해서도 추정할 수 있다. 봉업사지 석불입상의 조성시기는 통일신라 불입상의 형식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면서 섬세하고 형식화, 세속화가 진행된 고려 초기 불상으로 여기지고 있다.[58] 죽주 지역에 조성된 대표적인 광종대 불상으로는

54) 류영철, 『高麗의 後三國 統一過程 硏究』, 京仁文化社, 2004. 78면.
55) 정성권, 「고려 태조 왕건을 보는 또 다른 시각—미술사와 고고학을 통하여」, 『東洋學』 61,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15, 160-162면.
56) 안성시, 『안성 봉업사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 자료보고서』, 2023, 23면.
57) 『고려사』 열전 권제5, 제신, 이총언.
58) 최성은, 「高麗前期의 石佛 試考—廣州, 楊州, 竹州일대의 석불을 중심으로」, 『고려시대 개성과 경기』, 경기도박물관, 2003, 43면

안성 매산리 석조보살입상이 있다. 매산리 불상은 '신양식'으로 분류될 정도로 통일신라 불상과 양식적 차별성을 보여준다. 봉업사지 석불입상은 통일신라 전통이 계승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 보면 이 석불이 아직 '신양식' 불상이 정착되기 이전인 태조 왕건시기 조성된 석불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봉업사는 봉업사 오층석탑 주변의 건물지를 중심으로 태조 때 중창되었을 가능성 또한 있다고 생각한다.

봉업사지의 전면적인 중창은 고려 광종대 진행되었다. 이는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명문기와의 상당 부분이 고려 광종대 조성된 것이라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고려 광종은 봉업사지 오층석탑 일대의 건물뿐만 아니라 후삼국시대 이후 폐허 상태로 남겨져 있던 죽산리 삼층석탑과 함께 주변 사역을 새롭게 중창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진전을 설치하여 봉업사의 사역을 대폭 확장하였다. 고려 광종에 의한 대대적인 중창 이후 봉업사는 몽골침략기 전장의 한가운데 있기도 하였으나 고려시대 내내 법등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 후기가지 사세를 유지하였던 봉업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今只有石塔"이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초기에 폐사된 것으로 보인다.

3. 석조미술을 통해 본 역사적 위상

1) 통일신라시대 죽산리 삼층석탑 기단부, 죽산리 석불입상

죽산리 석불입상은 죽산리 삼층석탑에서 북쪽으로 약 150m 떨어진 곳에 있다. 이 장소는 본래의 장소가 아니며 죽산리 삼층석탑 인근에서 옮겨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죽산리 석불입상은 머리가 어깨에 비해 크며 불신의 양감이 줄어 전체적으로 평평하고 길쭉한 신체적 특징을 보인다는 이유로 고려 초기의 석불로 추정되었다.[59] 그러나 이후의 연구는 고려 초기의 석불과 안성 및 이천 일대의 고려시대 석불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죽산리 석불입상이 통일신라 석불입상임을 밝혔다.[60]

---

59) 최성은, 「고려시대 불교조각의 대중관계」, 『高麗 佛教美術의 對外交涉』, 예경, 2004, 114면.



〈그림 6〉 죽산리 삼층석탑



〈그림 7〉 죽산리 석불입상

죽산리 삼층석탑은 고려시대 석탑이나 하층기단은 통일신라 삼층석탑의 기단부를 재사용하여 하층기단 위에 고려시대 석탑을 조성한 것이다. 죽산리 삼층석탑은 1층 탑신석과 옥개석에 비해 상층기단 갑석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으며 갑석 상면이 복련으로 마무리되어 있다. 또한 옥개받침 역시 1층부터 3층가지 모두 4단으로 마감되었다. 죽산리 삼층석탑은 기단부와 탑신부의 탱주나 옥개받침, 갑석의 탑신괴임 등의 다듬은 상태가 상대적으로 정연하지 않게 마감되었으며 상층기단은 탱주가 없이 우주만 장식하였다. 이에 반해 매몰되어 있었던 하층기단은 한 줄의 탱주가 선명하게 조각되어 있으며 한돌로 조각된 하층기단 저석과 하층기단 면석의 조각 깊이 역시 상층기단이나 탑신석의 우주 조각보다 도드라지게 조각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죽산리 삼층석탑은 통일신라 삼층석탑의 하층기단을 재사용하여 고려시대 삼층석탑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려시대 조성된 현재의 죽산리 삼층석탑 기단부가 통일신라 삼층석탑의

60) 정성권, 「경기도 내 통일신라 석불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고찰—죽산리 석불입상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86, 부산경남사학회, 2013, 1-31면.

기단부였다는 점은 이곳에 통일신라시대 삼층석탑이 조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죽산리 삼층석탑 부근에는 통일신라시대 삼층석탑뿐만 아니라 통일신라시대 조성된 죽산리 석불입상 역시 건립되어 있었다. 죽산리 삼층석탑과 석불입상은 9세기 화차사가 확장될 때 조성된 통일신라 석조미술이다.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일대는 진흥왕이 553년 한강 유역을 점령한 이후 통일신라시대까지 300년 이상 지속적으로 신라의 영역이었다. 그런데도 이 지역에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삼국시대 신라나 통일신라시대로 인정되는 석탑이나 불상이 한 점도 없었다. 봉업사지 3차 발굴과 근래의 연구를 통해 봉업사지에 통일신라 삼층석탑과 석불입상이 세워져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통일신라시대 화차사에 건립되었던 삼층석탑과 죽산리 석불입상은 봉업사의 전신인 화차사의 위상이 매우 높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후삼국시대 이후 고려시대 건립된 백제계 석탑이 백제문화권의 범위를 보여주듯이 정형기 통일신라 삼층석탑은 신라문화권의 범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적 아이콘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신라 삼층석탑을 비롯한 통일신라시대 처음 등장한 불교미술의 분포 범위는 통일신라 문화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으로 연구되어 밝혀진 통일신라 문화권의 북방한계선은 속초-인제-홍천-횡성-원주-안성-평택으로 알려져 있다.[61]

통일신라 문화권의 북방한계선의 중심지는 원주 거돈사지로 선정할 수 있다. 거돈사는 신라의 단의장옹주가 864년(경문왕 4) 지증대사 도헌에게 안락사(거돈사)의 주지가 되기를 청했다는 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비의 내용을 통해 864년경 창건된 사찰로 파악되고 있다.[62] 화차사는 신라문화권의 중심지역할을 하였던 원주 거돈사보다 100여 년 전에 창건되었으며 거돈사보다 앞선 9세기 전반기에 통일신라 문화의 아이콘인 삼층석탑이 조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지역에서 유일하게 통일신라시대 금동불을 닮은 석불입상이 조성되기도 하였다. 화차사에 통일신라시대 삼

61) 정성권, 앞의 글, 2019, 231-250면.
62) 김용선, 「고려 전기의 법안종과 지종」, 『江原佛教史研究』, 소화, 1996, 93-94면; 이인재, 「羅末麗初 北原京의 政治勢力 再編과 佛教界의 動向」, 『韓國古代史研究』 31, 2003, 305면.

층석탑뿐만 아니라 석불입상까지 함께 건립되었다는 점은 봉업사의 전신인 화차사의 寺格이 매우 높았음을 방증한다.

2) 봉업사지 석불입상

봉업사지 석불입상은 현재 칠장사에 봉안되어 있다. 봉업사지 석불입상의 착의 형태와 손의 모습, 옷주름 등은 기본적으로 거창 양평동 석불입상이나 농산리 석불입상과 같은 전형적인 신라 하대 불입상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다만, 이 상에는 신라 하대 불입상의 형식에서 조금 더 형식화가 진행되었다.[63] 봉업사지 석불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학계에 소개된 바 있다.[64] 이후 이 석불은 개설서 등에 나말려초기에 조성된 석불로 소개되었으며[65] 태봉시대나 또는 후삼국시대 능달의 사찰 중건 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하였다.[66] 봉업사지 석불입상의 조성시기는 통일신라 불입상의 형식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면서 섬세하고 형식화, 세속화가 진행된 고려 초기 불상으로 여기지고 있다.[67]



〈그림 8〉 봉업사지 석불입상

63) 최성은, 『석불 돌에 새긴 정토의 꿈』, 한길아트, 2003, 252면.
64) Harrict C.Mattusch, 1962, 「安城 二竹面의 菩薩立像과 臺座」, 『考古美術』 28, 한국미술사학회, 1962.
65) 최성은, 『석불·마애불』, 예경, 2004, 281면.
66) 최성은, 「나말려초 중부지역 석불조각에 대한 고찰—궁예 태봉(901-918)지역 미술에 대한 시고」, 『역사와 현실』 44, 한국역사연구회, 2002, 52면.
67) 최성은, 「高麗前期의 石佛 試考—廣州, 楊州, 竹州일대의 석불을 중심으로」, 『고려시대 개성과 경기』, 경기도박물관, 2003, 43면; 봉업사지 석불입상은 11세기 조각들에 비해 더욱 정형화된 단계

봉업사지 석불입상은 여주 계신리 마애불, 여주 포초골 석불좌상, 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과 같이 나말여초기로 비정되는 불상이다. 안성 봉업사지 석불입상은 고려 광종대 건립된 안성 매산리 석조보살입상보다 양식적으로 앞선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태조 왕건 재위 기간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불상이다. 봉업사지 석불입상은 봉업사가 태조 왕건시기 중창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석불이라 할 수 있다.

3) 봉업사지 오층석탑

봉업사지 오층석탑은 고려 초기 건립된 석탑으로 일층 탑신석이 매우 높으며 2층 탑신석부터 탑신의 높이를 급격하게 줄여 상대적인 안정감과 함께 당당함을 함께 느낄 수 있게 만들어진 오층석탑이다. 봉업사지 1·2차 발굴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려시대 들어와 오층석탑이 건립되면서 목탑지는 금당지로, 금당지는 강당지로 다시 건립되었다.[68]

목탑지를 금당지로 후대에 다시 건립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는 천왕사지에서도 확인된다. 하남 천왕사지 일대를 발굴한 화랑문화재연구원은 천왕사지 심초석 인근에서 확인된 건물지를 목탑지로 파악하였다.[69] 그러나 이후의 연구에서는 목탑지를 금당지로 추정하였으며 화랑문화재연구원이 금당지로 추정한 건물지를 강당지로 파악하고 있다.[70] 천왕사지는 연구자에 따라 목탑지에 대한 이견이 있으나 천왕사지 목탑지의 경우 봉업사지처럼 본래 목탑

를 보여주는 상으로써 玄化寺 칠층석탑(1020) 부조상을 알고 있는 석장이 조성한 석불로 추정되기도 한다.(최성은, 「고려 전기 竹州의 석불조각」, 『안성 칠장사와 혜소국사 정현』, 사회평론, 2011; 최성은, 2011, 「竹州 長命寺址 석불좌상의 복원적 고찰과 고려 초기 석불 양식」, 『講座美術史』 36, 韓國佛教美術史學會, 527면.) 안성 봉업사지 석불입상은 안성·이천 및 충청 지역에 등장하는 10세기 중반-11세기 석불들과 양식적 친연성이 매우 적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고려 초기 조성설이 보다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정성권, 「태조 왕건의 봉업사 중창과 능달—봉업사지 석불입상과 관련하여」, 『한국사학보』 51, 고려사학회, 2013, 182-184면.

68) 京畿道博物館, 『奉業寺』, 2002, 448면.

69) 화랑문화재연구원, 『하남 하사창동 342-2번지 일대 건물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2017, 38면.

70) 최태선, 「하남의 사원유적과 유물연구」, 『하남역사총서』 2. 하남역사박물관, 2020, 332-335면.

지였다가 후대에 금당으로 바뀌었을 가능성 또한 있다고 생각된다.

봉업사지 오층석탑은 고려 초기 조성된 석탑이다. 봉업사지 오층석탑 부근에서는 다량의 명문기와가 발견되었으며 조성시기를 알 수 있는 명문기와는 956년(광종 7)부터 974년(광종 25) 사이의 명문기와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71] 봉업사지 오층석탑 일대에서 출토된 명문기와와 봉업사지 석불입상의 조성시기 등을 고려한다면 봉업사지 오층석탑은 고려 태조 왕건 재위기간이나 고려 광종대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려 광종대 조성된 대표적인 석탑은 951년(광종 2) 개성 불일사를 건립하였을 때 같이 조성한 불일사 오층석탑이 있다. 이밖에 고려 광종대 건립된 대표적인 석탑으로는 하남 동사지 오층석탑을 들 수 있다. 하남 동사지는 고려 광종대 새롭게 중창된 사찰이다.[72] 광종대 조성된 불일사지 오층석탑은 역시 광종대 조성된 개태사지 오층석탑과 탑신부의 조형이 유사하다. 불일사지 오층석탑과 동사지 오층석탑은 모두 이중기단을 갖추고 있다. 이에 반해 봉업사지 오층석탑은 단층기단이며 1층 탑신부에 감실이 있다. 1층 탑신의 감실은 불일사지 오층석탑이나 동사지 오층석탑에서는 볼 수 없다. 또한 봉업사지 기단 갑석 상면에는 홈이 파여있는데 이는 다른 석탑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광종대 조성된 오층석탑과 봉업사지 오층석탑을 비교해 보면 석탑의 형식적인 면에서 차이가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봉업사지 오층석탑은 고려 건국 후 태조 왕건시기에 건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늦어도 고려 광종대에는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일신라 정형기의 삼층석탑과 비교해 보았을 때 봉업사지 오층석탑의 조형이 의도한 점은 통일신라 삼층석탑과 의도적인 차이를 보이고자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석탑을 단층기단의 오층 석탑으로 만들었다. 통일신라시대에도 오층석탑은 만들어졌으나 기본적으로 평면 방형의 이중기단을 갖춘 삼층석탑이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석탑이다. 봉업사지 오층석탑이 태조 왕

71) 京畿道博物館, 『奉業寺』 2002, 456면.
72) 정성권, 「하남 하사창동 천왕사지 철불좌상의 조성배경」, 『민족문화연구』 99,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3, 138-143면.

건시 조성되었다면 봉업사지 오층석탑 건립 이후 고려 전기 국가의 후원을 받아 조성된 주요 사찰의 석탑은 봉업사지 오층석탑을 따라 오층이 주류를 이루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9〉 봉업사지 오층석탑



〈그림 10〉 불일사 오층석탑

태조 왕건과 광종대 조성된 대형 오층석탑은 삼층석탑이 통일신라 문화의 아이콘 역할을 하였듯이 새로운 통일왕조 고려의 문화적 아이콘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봉업사지 오층석탑은 삼남지방에서 올라오는 길이 만나는 봉업사지에 세워짐으로써 새로운 통일왕조 고려의 등장을 알리는 기념물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매산리 석불입상

안성 매산리 석조보살입상의 지정 명칭은 매산리 석불입상이다. 이 석불은 봉업사지 오층석탑에서 북동쪽으로 약 800m 떨어진 매산리 미륵당 안에 있다. 석불은 대의를 입고 있으며 머리에 면류관형 보개를 착용한 불상 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불상이다. 매산리 석조보살입상은 한국 불교조각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안성 매산리 석조보살입상은 고려 광종이 스스로 황제라 칭하며 본격적인 황제국 체제를 구축한 960년(광종 11)-963년(광종 14) 사이에 조성된 불상으로 연구되었다.[73] 매산리 석조보살입상은 970년(광종 21) 본격적으로 착공된 논산 관촉사 석조보살입상의 祖型으로 알려져 있다.[74]

매산리 석조보살입상은 호족의 시대가 끝나고 황제의 시대가 등장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기념비적인 불상이다. 이러한 불상이 봉업사지 권역 내에 조성된 이유는 불상이 건립된 장소 앞에서 충주에서 오는 길과 청주에서 오는 길, 즉 삼남지방에서 올라오는 길이 석불 앞에서 합쳐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통의 요지에 황제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석불을 세움으로써 입소문을 통해 세상이 변했음을 빠르게 전파할 수 있었다.

매산리 석불을 봉업사 권역에 건립한 또 다른 이유는 봉업사가 반 광종 세력을 견제하고 제압하는 지휘소 같은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광종이 봉업사에 보인 관심은 다른 어떤 사찰보다 크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황즉불사상이 반영된 안성 매산리 석조보살입상이며 광종 재위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봉업사가 중창된 것을 보여주는 명문기와이다.

광종은 자신의 이복형인 혜종과 친형인 정종을 제거하고 왕위에 올랐다. 광종은 왕위에 오른 후 혜종과 정종을 따랐던 인물들을 숙청하였으나 그들의 근거지에는 여전히 반 광종 세력이 건재하였다. 광종이 가장 크게 경계했던 지역은 현재의 경기도 광주, 진천과 청주 일대이다. 광주는 친 혜종 세력이었던 왕규의 세거지였으며 왕규가 제거될 당시 그를 따르던 300명도 함께 처형당했다.[75] 이 300명은 주로 광주 출신이었으며 충주유씨 세력에 대한 반감은 광종 집권기에도 지속된 것으로 파악된다. 광종은 집권 후 광주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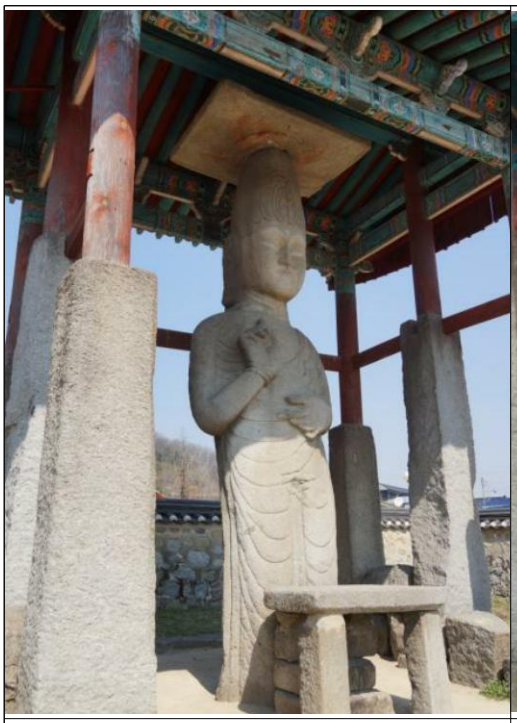
---

73) 丁晟權, 「安城 梅山里 石佛立像 硏究-高麗 光宗대 造成說을 제기하며」, 『文化史學』 17, 韓國文化史學會, 2002, 290-297면; 「高麗 光宗을 보는 또 다른 시각—미술사와 고고학을 통하여」, 『韓國人物史硏究』 19, 한국인물사연구회, 2013, 245-249면.

74) 정성권, 「여래형 복식착용 보살상의 등장과 전개—청담사지 자씨각 보살상을 중심으로」, 『동악미술사학』 22, 동악미술사학회, 2017, 93면.

75) 『高麗史』 卷127, 열전 반역 왕규.

의 반란을 감시하고 광종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 동사지를 대규모로 중창하고 우리나라 최대의 소조불 좌상을 동사에 건립하였다.[76]



〈그림 11〉 매산리 석불입상 측면



〈그림 12〉 매산리 석불입상 정면

광종이 경계했던 진천과 청주 세력은 광종이 제거했던 혜종과 정종의 처가 세력의 본거지였다. 혜종의 장인은 진천 임희와 청주 김긍률, 경주 연예 등이며 김긍률은 정종의 장인이기도 하였다. 이 호족 세력들은 광종이 등극한 후 표면적으로 불만을 들어내지 못했을 것이나 언제든지 광종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세력이었다.[77] 친 혜종 세력은 청주와 진천뿐만 아니라 혜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 박술희와 함께 步騎 1만을 거느리고 주둔하였던 천안 지역 역시 친 혜종 세력의 근거지로 추정되며 박술희의 고향인 현재의 당진 지역 역시 혜종을 지지했던 세력이 여전히 큰 힘을 유지하고 있었다. 광종은 진천, 청주, 천안, 당진에 포진해 있는 반광종 세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며 만약

76) 정성권, 「하남 하사창동 천왕사지 철불좌상의 조성배경」, 『민족문화연구』 99,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3, 138-143면.
77) 정성권, 「고려 광종을 보는 또 다른 시각—미술사와 고고학을 통하여」, 『한국인물사연구』 19, 한국인물사연구회, 2013, 245면.

내전이 발생하게 되면 승기를 잡기 위해 사찰을 창건하거나 중창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성을 신축하거나 수리하며 반광종 세력을 예의 주시하였다.

광종은 죽주를 중심으로 봉업사, 죽주산성, 망이산성, 장능리 사지 등을 수리하고 새롭게 만들었다. 죽주 동쪽에는 숭선사를 창건하여 충주와의 연결을 원활하게 하였으며 죽주 서쪽인 현재의 평택에는 965년(광종 16)에 비파산성을 축조하였다.[78] 광종은 평택-안성(죽주)-숭선사-충주-제천-영월[79]을 연결하는 지역을 정비하였으며 동시에 본격적인 구신 숙청 작업을 진행하였다. 광종대 신축하거나 중창한 불상, 사찰 및 관방유적의 연결선은 충주-원풍리 마애불- 각연사로도 연결된다[80]

광종이 반광종 세력을 견제하고 그들의 반란 가능성에 대비하여 구축한 전선의 중심에는 봉업사가 있다. 안성 매산리 석보조살입상은 황제의 시대를 선포하며 구신을 숙청하고 황권을 강화하려는 황제 광종의 의지를 보여주는 표상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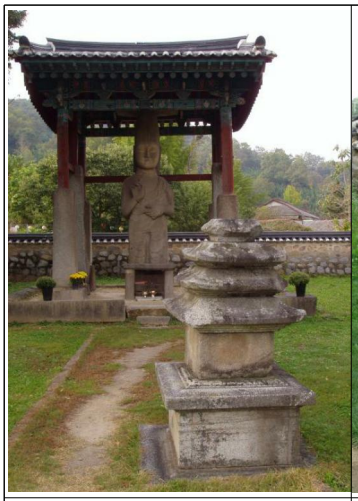
5) 매산리 미륵당 오층석탑, 죽산리 석불입상 옆 석탑

매산리 석조보살입상 앞에 있는 매산리 미륵당 오층석탑은 죽산리 석불입상 옆에 있는 석탑과 형식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많다. 갑석의 하단을 선형을 처리한 점이나 1층 탑신 괴임이 각호각으로 되어 있는 점 이밖에 옥개석 합각부 하단에 한 줄의 선을 넣은 점 등은 매우 닮았다. 이러한 제작기법의 유사점은 두 석탑이 쌍탑이었음을 보여준다.

매산리 미륵당 오층석탑은 석탑에서 출토된 영태2년명 탑지석을 통하여 993년(성종12) 조성된 석탑임을 알 수 있다. 미륵당 오층석탑과 죽산리 석

78)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평택 서부 관방산성 시·발굴조사 보고서』, 2004, 359면.
79) 제천 월광사의 지정학적 위치와 영월 흥녕사 징효대사탑비의 비문을 보면 이 지역의 주요 단월이 충주 유씨 세력임을 알 수 있다. 영월과 충주 세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李仁在, 「충주 정토사 玄暉와 영월 흥녕사 折中」『韓國古代史硏究』 49, 2008, 318면.
80) 정성권, 「괴산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의 조성 배경」, 『문화재』 53-3, 국립문화재연구소, 2020, 23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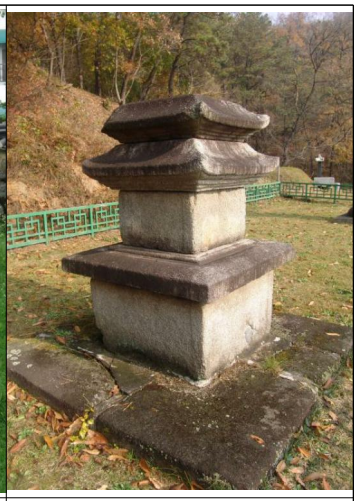
불입상 옆 석탑은 오층석탑이나 오층임에도 불구하고 규모는 크지 않은 편이다. 두 석탑을 통해서 안성 봉업사지 일대에 쌍탑을 갖춘 별도의 사찰 구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 쌍탑은 감은사지나 불국사의 석탑에서 알 수 있듯이 비교적 흔하게 건립되었으나 고려시대 사찰에서는 쌍탑이 자주 건립되지 않았다. 고려시대 조성된 사찰 중에서 쌍탑이 건립된 사례는 발굴조사에서 쌍탑지가 확인된 법천사지가 있다. 법천사지에는 쌍탑이 탑전 공양상과 함께 금당 앞에 조성되었다. 법천사지는 지광국사현묘탑의 주인공인 해린이 법천사로 하산한 1067년 이전인 11세기 전반기에 대대적인 중창이 있었음이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81] 매산리 미륵당 오층석탑과 죽산리 석불입상 옆 석탑은 993년 조성된 쌍탑으로 법천사지 불지 영역에 쌍탑이 조성되는 데 일정한 영향을 끼친 석탑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3〉 매산리 미륵당 오층석탑과 석불입상



〈그림 14〉 매산리 미륵당 오층석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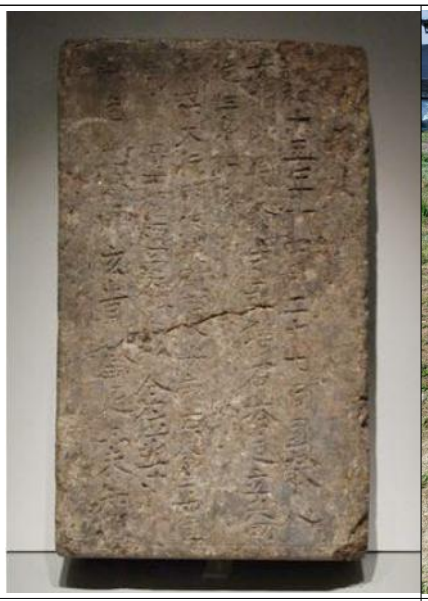


〈그림 15〉 죽산리 석불입상 옆 석탑

매산리 미륵당 석탑은 993년(성종 12) 죽산 박씨가 주도하여 건립하였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인 997년(성종 16) 봉업사지 오층석탑에서 서쪽으로 약 1km 정도 떨어진 현재의 죽산 시내에 장명사지 오층석탑과 대형 석불입상이 조성되었다.[82] 현재 장명사지 오층석탑의 탑지석이 전하고 있어 석탑의

81) 정성권, 「고려시대 塔前 石造供養菩薩像의 등장과 전개」, 『불교미술사학』 21, 불교미술사학회, 2016, 54-58면.

구체적인 조성시기와 조성 세력을 파악할 수 있다. 탑지석에 의하면 장명사지 오층석탑은 997년 戶長 安帝京과 金正, 崔□ 등이 주도하여 건립한 석탑이다.[83]



〈그림 16〉 장명사지 오층석탑 탑지석



〈그림 17〉 장명사지 석불입상

미륵당 오층석탑과 장명사지 오층석탑 및 석불입상이 죽주라는 한 공간에서 비슷한 시기에 각각 다른 주도 세력에 의해 건립된 것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고 생각한다. 봉업사지는 처음 창건된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 초기인 광종대까지 국가의 주도하에 사찰이 창건 및 중창 되고 관리되었던 국영사찰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11세기에 들어서는 993년과 997년경부터는 죽주 지역의 토착 세력 사이에 경쟁 관계가 형성되며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사찰을 새롭게 창건한 것으로 보인다. 즉 봉업사는 11세기경부터 국영사찰에서 읍치사찰로 사찰의 본질적인 성격이 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82) 장명사지에는 현재 파손된 대형 석불입상의 대좌와 대좌에 꽂는 대형 촉이 남아 있는 하체 부분만 잔존해 있다. 장명사지 불상은 그동안 석불좌상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 남아 있는 부재의 흔적을 확인해 보면 좌상이 아니라 입상임을 알 수 있다.

83) 국가유산 지식이음, 금석문 검색, 안성 장명사 통화명석탑지석(安城 長命寺 統和銘石塔誌石).

4. 맺음말

안성 봉업사지는 6차에 걸친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많은 유물과 명문기와 등이 출토되었다. 봉업사지 일원에는 다양한 석탑과 석불이 분포하고 있어 일찍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봉업사지는 고고학적 발굴성과와 주변의 석조미술을 대상으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봉업사지의 구체적인 조성시기와 석조미술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봉업사지의 역사적 위상을 찾는 연구는 미흡하였다.

본문에서는 먼저 봉업사의 발굴성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발굴 지구별 다양한 명문기와의 출토 양상을 파악하였으며 봉업사의 변천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명문기와와 영태2년명 탑지석의 기록 등을 토대로 봉업사의 전신인 화차사의 창건시기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화차사는 북경도위를 역임하였으며 신라 중앙에서 파견된 박적오가 주도하여 766년경 창건한 사찰임을 논의하였다.

8세기 중반경인 766년은 아직 불국사도 완공되지 않았던 시기로 경주 외곽에 사찰이 창건된 사례는 매우 드물었던 때였다. 이러한 시기에 봉업사지의 자리에 화차사가 창건되었다는 점은 화차사가 국가의 지방 경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찰이었다는 점을 방증한다. 화차사의 창건 배경은 패서 지역 개척과 당은포로 가는 교통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한주의 치소였던 하남과 중원경이 있었던 충주, 서원경의 청주를 연결하는 중간지점에 사찰을 창건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766년경 창건된 화차사는 '태화6년'(832)명 명문기와의 출토 양상을 통해 832년경에는 현재의 죽산리 삼층석탑이 있는 영역으로 사찰이 확장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대중8년'(854)에는 목탑지가 있는 봉업사지 오층석탑 일대의 건물지가 중수되었다. 나말의 혼란기에는 죽주적괴 기훤의 활약과 비뇌성 전투의 영향 등으로 인해 죽산리 삼층석탑 일원의 사찰이 폐허가 되었으며 이후 고려 광종대 다시 중창된 것으로 보았다.

봉업사지 오층석탑 일원은 출토된 명문기와를 통해 보았을 때 고려 광종

대 대대적인 중창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봉업사지 오층석탑과, 봉업사지 석불입상의 양식적 특징과 태조 왕건대의 역사적 상황은 봉업사지 오층석탑 일원의 구역이 태조 왕건시기에도 중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석조미술에 대한 분석은 봉업사지 일대의 석탑과 석불을 위주로 진행하였다. 죽산리 삼층석탑 하부의 통일신라 삼층석탑 기단부 부재와 죽산리 석불입상은 경기도 내에 현존하는 유일한 통일신라 삼층석탑과 통일신라 석불입상임을 논의하였다.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일원은 신라가 553년 진흥왕 이후 신라의 멸망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영유하였던 장소이다. 그런데도 통일신라 석조미술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통일신라 문화권의 북방한계선과 관련이 있음을 논의하였다. 현재의 경기도 일원에서 거의 조성되지 않았던 통일신라의 삼층석탑과 금동불을 닮은 석불입상이 봉업사지에 모두 남아있다는 것은 사찰의 위상이 매우 높았다는 점을 방증한다.

신라의 문화적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정형기 삼층석탑과 구분되는 봉업사지 오층석탑은 고려 문화를 상징하는 기념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형 석탑인 봉업사지 오층석탑이 삼남지방의 교통로가 모이는 봉업사에 건립된 이유는 새로운 통일왕조 고려의 등장을 알리는 기념물 역할도 한 것으로 보았다.

안성 매산리 석조보살입상은 고려 광종이 호족의 시대는 끝났으며 황제의 시대가 등장했다는 것을 고려의 백성과 자신의 정적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조성한 석불이다. 안성 매산리 석조보살입상은 황제의 시대를 선포하며 구신을 숙청하고 황권을 강화시키려는 황제 광종의 의지를 보여주는 표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석불이 봉업사 권역에 건립되었다는 점은 봉업사가 국가적 관심을 받는 국영사찰의 성격을 갖고 있는 장소임을 나타낸다.

매산리 미륵당 오층석탑은 993년 조성된 석탑으로 죽산리 석불입상 옆에 있는 석탑과 쌍탑으로 제작된 석탑이다. 고려시대 쌍탑이 갖추어진 사찰은 11세기 전반기 대대적인 중창이 이루어진 법천사에서 찾을 수 있다. 봉업사지 미륵당 석탑은 법천사지 쌍탑보다 먼저 조성된 석탑이라는 점에서 고려시

대 쌍탑의 영향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미륵당 오층석탑은 탑지석을 통해 죽산 박씨가 주도하여 만든 석탑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인 997년에 호장 안제경을 중심으로 김정과 최씨 등이 참여하여 봉업사와 떨어진 죽산 시내에 장명사지 오층석탑과 대형 석불인 장명사지 석불입상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11세기에 들어서는 시기부터 토착 세력의 경쟁관계가 드러난 것으로 보았으며 11세기 이후 봉업사는 국영사찰에서 읍치사찰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 참고문헌

『三國史記』
『高麗史』
『新增東國輿地勝覽』
京畿道博物館, 『奉業寺』, 2002.
京畿道博物館, 『高麗 王室寺刹 奉業寺』, 2005.
김용선편, 『고려묘지명집성』, 한림대 아세아문화연구소, 1993.
서영일,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안성시, 『안성 봉업사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 자료보고서』, 2023.
중부고고학연구소, 『安城 奉業寺址』, 2020.
한백문화재연구원, 「안성 봉업사지 6차 정밀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2024.

김용선, 「고려 전기의 법안종과 지종」, 『江原佛敎史硏究』, 소화, 1996.
소현숙, 「6세기 말 7세기 전반 신라 불상의 새로운 경향과 對中交流」, 『신라사학보』52, 2021.
李基東, 「新羅下代의 浿江鎭」, 『韓國學報』 4, 일지사, 1976.
이도학, 「궁예의 북원경 점력과 그 의의」, 『東國史學』 34, 2007.
李樹健, 「高麗前期 地方勢力과 土姓」, 『韓國中世社會史硏究』, 一潮閣, 1984.
이인재, 「羅末麗初 北原京의 政治勢力 再編과 佛敎界의 動向」, 『韓國古代史硏究』 31, 2003.
_____, 「충주 정토사 玄暉와 영월 흥녕사 折中」, 『韓國古代史硏究』 49, 2008.
이재범, 「신라말·고려초 안성지역의 호족과 칠장사」, 『안성 칠장사와 혜소국사 정현』, 사회평론, 2011.
정성권, 「安城 梅山里 石佛立像 硏究-高麗 光宗대 造成說을 제기하며」, 『文化史學』 17, 2002.
정성권, 「弓裔와 梁吉의 전쟁, 비뇌성 전투에 관한 고찰」, 『軍史』 83, 2012.
정성권, 「불교미술 분포를 통해 본 신라문화권의 북방한계」, 『신라사학보』 46, 2019.
정성권, 「괴산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의 조성 배경」, 『문화재』 53-3, 2020.
정성권, 「하남 하사창동 천왕사지 철불좌상의 조성배경」, 『민족문화연구』 99, 2023.
정성권, 「후백제의 불교조각과 합천 죽고리 석조비로자나삼존상」, 『동양학』 97, 2024.
정제규, 「월광사의 사상적 변화와 그 위상」, 『제천 월광사지』, 충청전문대학 박물관, 1998.
鄭淸柱, 「新羅末高麗初 豪族의 形成과 變化에 대한 一考察—平山朴氏의 一家門의 實例 檢討」, 『歷史學報』 118, 1998.
장일규, 「창녕 관룡사의 역사와 寺格」, 『신라사학보』 44, 2018.
최성은, 「나말려초 중부지역 석불조각에 대한 고찰—궁예 태봉(901-918)지역 미술에 대한 시고」, 『역사와 현실』 44, 2002.
최성은, 「高麗前期의 石佛 試考—廣州, 楊州, 竹州일대의 석불을 중심으로」, 『고려시대 개성과 경기』, 경기도박물관, 2003
최성은, 「竹州 長命寺址 석불좌상의 복원적 고찰과 고려초기 석불 양식」, 『講座美術史』 36, 2011.
최태선, 「하남의 사원유적과 유물연구」, 『하남역사총서』 2. 2020.
황보경, 「하남지역 불교유적에 대한 연구」, 『고문화』 56, 2000.

【Abstract】

Historical status of Anseong Bongyeopsa Temple site as seen through stone art

Jeong, seong-Kwon*

Bongyeopsa was founded as Hwachasa during the Unified Silla period. It was discussed that Hwachasa was a temple founded by Park Jeok-o, who was dispatch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of Silla in 766. It was understood that Hwachasa was founded due to the need for safe management of the transportation route connecting Chungju and Cheongju to the Hanam region.

The analysis of stone art was conducted mainly on the stone pagodas and stone Buddhas in the Bongyeopsa Temple area. By analyzing the three-story stone pagoda in Juksan-ri and the Unified Silla foundation at the bottom of the stone pagoda, it was mentioned that the Bongyeopsa Temple site was a temple of very high status as it was the only temple in Gyeonggi-do that had a three-story stone pagoda from the Unified Silla period and a stone Buddha statue resembling a gilt-bronze Buddha.

The five-story stone pagoda of Bongyeopsa Temple, which is distinct from the three-story stone pagoda of Silla, was interpreted as a monument symbolizing Goryeo culture. The stone seated bodhisattva statue of Maesan-ri was viewed as a monumental stone Buddha proclaiming by King Gwangjong of Goryeo that the era of the aristocracy was over and the era of the emperor had begun. It was discussed that the five-story stone pagoda of Mireukdang of Maesan-ri was built as twin pagodas. The five-story stone pagoda and stone seated Buddha statue of Jangmyeongsa Temple were also analyzed along with the stone art of the Bongyeopsa Temple area. Through this, it was found that the nature of the temple changed from a state-run temple to a provincial temple after the 11th century.

Keywords: Bongupsaji Temple, Hwachasa Temple, Taejo Wang Geon, Gwangjong(光宗), Bongupsaji stone art, Cheonwangsaji Temple

---

* Expert member,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접수일: 2025.03.31. || 심사일: 2025.05.14. || 게재확정일: 2025.05.21.